

고양시 일산아이파크 ‘하늘마을’

(고양시민회, 중산동주민자치회)

사업명

싱싱어게인(폐자전거 리사이클)

단계(연차) 1단계(1년차)

추진예산/총예산(집행률) 11,361,560원/ 12,000,000원 (94.7%)

주요 성과 타이틀

“더 오래 달리는 자전거,
더 오래 달리는 지구”

[키워드] 폐자전거 되살림
자전거 수리 주민 교육
아파트단지 출장수리
폐자전거 활용 공유자전거 마련

마을 소개

하늘마을은 고봉산 자락 아파트단지로 자녀가 있는 젊은 세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입주한 지 2년밖에 안 돼 새로운 실험을 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기에 안성맞춤입니다(2년 사이 방치된 폐자전거가 2단지에만 400여 대에 달함). 한편으로는 베드타운 성격이 강해 공동체 문화가 다소 약한 측면도 있어 이번 기회에 자전거 수리 교육과 나눔장터, 단지 내 공유자전거 마련 등을 통해 함께 하는 경험을 제공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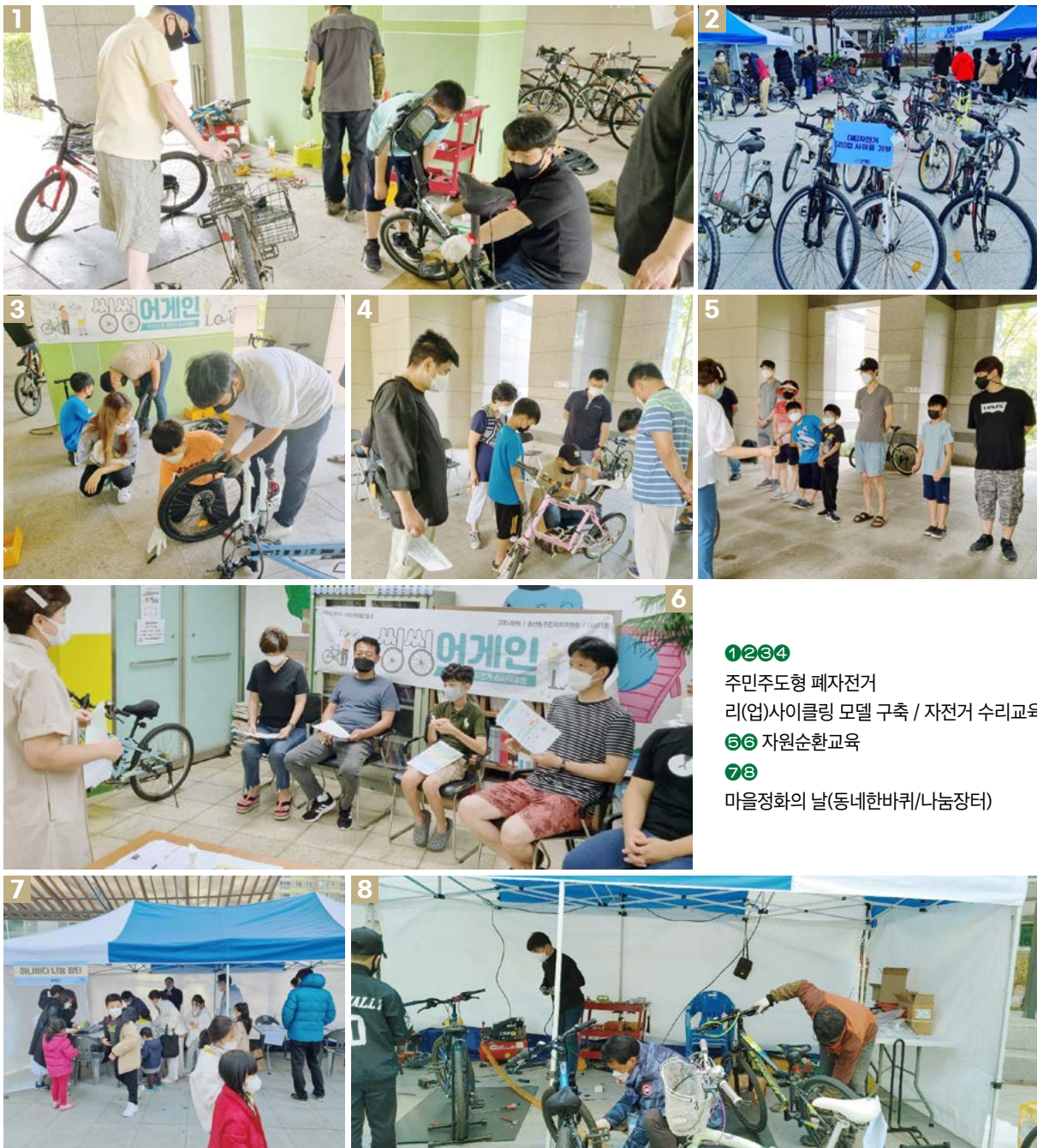
주요사업 및 추진결과

- 자전거 수리 교육(3회· 31명 참석)
- 자원순환 교육(3회· 31명)
- 자전거 출장 수리(3회· 228대 수리)
- 폐자전거 수거(4회· 575대)
- 나눔장터(1회)
-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자전거 수리 교육(총 6시간 교육 과정으로 3회 진행)을 통해 바퀴에 구멍이 나가거나 체인이 빠지는 등의 잔고장으로 자전거가 버려지는 것을 막도록 하는 한편, 잔고장으로 집에 방치된 자전거들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쉽게 고칠 수 있는 출장 수리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자전거를 고쳐 쓰는 문화를 마련하고자 했음. 나아가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을 수거해 그 중 일부를 고쳐 단지 내에서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총 20대)로 활용함

사업
성과

- ☑ 단지 내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돼 있던 폐자전거 575대 수거
- ☑ 자전거 출장 수리를 통해 228대의 고장 난 자전거를 되살려 다시 달리게 함
- ☑ 단지 내 공유자전거 도입함으로써 가까운 거리는 차가 아닌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 무엇보다 위 과정들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폐자전거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작은 관심과 약간의 제도적 뒷받침만으로도 엄청난 양의 자원이 버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함



1234 주민주도형 폐자전거 리(업)사이클링 모델 구축 / 자전거 수리교육
56 자원순환교육
78 마을정화의 날(동네한바퀴/나눔장터)